



제 392 호 2015년 3월 25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상공인의 모습	04면	생태·환경	06면	문화·예술	08면	숲의 도시, 안산
도심속 전통5일장, 시민시장으로 오세요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수달가족이 나타났어요		다시 시작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액션!’		숲의도시 안산 ‘항가울산림공원’이야기	



도심 한 복판에 5일장이 열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놓고 상인들과 한판 줄다리기를 한다. 가끔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서로 속상하기도 하지만 늘 좋을 수만은 없는 법. 15일 장날, 카메라에 담긴 초지동 시민시장... 사는 이도 파는 이도 모두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어 보는 이들마저 즐거워진다.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은 '상공(商工)의 날'이다. 상공업의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로서 지난 1964년 제1회 상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중간에 날짜가 변경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날, 발명의 날 등과 통합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며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42번째 행사다. 브라보안산은 상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몇몇 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

“도심 속 전통 5일장, 안산시민시장으로 오세요” 말만 잘하면 덤도 얻을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담담한 이야기가 있는 곳



전통5일장이 열린 지난15일, 초지동 시민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다.

봄기운이 완연했던 3월 15일. 일요일의 시민시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시장 초입부터 갖가지 나물과 과일, 생선 등을 파는 노점 상인들과 그 사이를 양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지나는 시민들로 걸음이 중간 중간 멈춰질 정도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니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 있는 곳이 눈에 띈다. 천 원짜리 한 장이면 막걸리 한 잔에 안주는

무한 제공하는 선술집이다. 돼지고기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구워지고 있고, 돼지껍데기, 두부 등이 주머니 가벼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든다. 친구들과 막걸리를 기울이던 어르신들은 “적은 돈으로 부담 없이 한 잔 할 수 있어 가끔 들른다.”며 “하루 벌여 하루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했다. “건축 경기가 갈수록 나빠져 일

이 없어 살기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 와도 만 원이면 요기도 하고, 세상은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며 막걸리 잔을 부딪쳤다.

그 옆은 칼국수를 파는 곳이 나온다. 가게 앞에서 기계로 면발을 뽑는 어르신은 “97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이 기계도 그때부터 사용했던 것이다. 예전보다 장사는 덜되지만 꾸준히 하니 나름대로 단골도 있다”고 말한다. 방부제를 넣지 않고 즉석에서 면발을 뽑아 삶는 칼국수는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기다렸다 국수를 사가는 시민도 많았다.

원곡동에 사는 결혼 이민 여성인 우웬 티 타요 씨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어요. 시장에 오면 물건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재미있어요. 맛을 보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다.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는 “시민들이 재래시장 물건을 마트 물건보다 질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제일 속상해요. 한자리에서 15년째 장사를 하는데 아무거나 갖다 팔지 않아요. 제가 파는 물건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며 웃었다.

매 5일과 10일의 주기로 열리는 안산시민시장. 도심 속에 위치한 시장으로 말만 잘하면 덤도 얻어주고, 보통사람들의 평범하고 담담한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다.

손님맞이로 허리 펴 시간이 없어 고단하지만 손님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상인들,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사람냄새 나는 시장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시민들. 서로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안산시민시장이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미니 인터뷰 I 동네빵집이 버틸 수 있는 이유, 단골손님 때문… 사1동 ‘빵 굽는 마을’

‘빵 굽는 마을’에서 옥수수식빵 경쟁은 치열하다. 가끔 저녁에 들러 옥수수 식빵을 찾으면 없을 때가 많다. 빵 굽는 마을은 항상 그날 아침에 빵을 제대로 구워내서, 빵에 탄력이 있고, 풍미가 있다.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빵 굽는 마을의 옥수수식빵 맛을 잊지 못해 이사 간 이후에도 차를 타고 와서 빵을 사가곤 한다. 프렌차이즈 빵집이 어느덧 골목 골목에 많아졌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동네 빵집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빵집마다 그 빵맛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빵 굽는 마을’은 근처에 프렌차이즈 빵집이 두 개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10년을 버틴 동네빵집이다. 파란 빵이 막 나온 시간, 남편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박현 대표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Q 언제부터 사1동에서 빵집 운영을 했나?

A 2005년 8월에 처음 문을 열었다. 10년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Q 빵 굽는 시간 맞춰 꼭 빵 사러 와야겠다. 빵 나오는 시간은 언제인가?

A 보통 다른 빵집들은 11시쯤에는 빵이 나오는데, 우리 가게는 빵이 좀 늦게나오는 편이다. 우리 가게는 아침 8시쯤에 빵을 반죽해서 발효시키고, 오븐에 굽는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 작은 빵을 먼저 굽고 나중에 큰 빵을 굽는다. 그



구운빵을 포장하고 있는 박현 대표

렇게 큰 빵까지 다 구워서 나오려면 오후 1시는 지나야 대충 모든 빵이 다 만들어진다.

Q 동네에 프렌차이즈 빵집이 두 개 정도 들어왔는데 타격은 없었나?

A 타격이 크다. 보통 프렌차이즈 빵집은 통신사 할인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인이 많이 되는 줄 알고 그쪽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15%, 20% 할인한다고 해도 우리 빵가게 보다 빵이 더 비싸다.

Q 그 경쟁에서도 ‘빵굽는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법이 있다면?

A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빵집은 뜨내기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빵집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도 꾸준히 단골들이 찾아주기 때문이다.

Q 빵집 운영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A 사실 제빵이 엄청난 막노동이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빵 만들고, 밤늦게 문을 닫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게 되는 것 같다. 반복되는 육체노동의 연속이니까 가끔 너무 지겨울 때가 있지만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게 나은 것 같다. 학교 끝나면 애들이 가게라도 올 수 있으니까.

Q 빵집 운영하며 보람 있었던 순간은?

A 가끔 이사 가셨는데도 우리 가게 빵맛이 다른 곳에선 안 난다며 멀리서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그저 감사할 뿐이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우리동네 상공인 이야기 I

‘K-AUTOPOP’ 박재운 대표이사 “전기자동차 부품으로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 싶다”



박재운 대표이사

3월 15일은 상공인의 날이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사회를 이만큼 살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상공인 중의 한 사람을 만나보았다.

‘K-AUTOPOP’의 박재운 대표이사(54세)는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28년간 엔진부터 브레이크, 오픈 클로저 시스템 등 부품을 연구했다. 자동차 연료가 가솔린에서 전기나 수소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맞춰 그는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의 트리거(trigger, 계기나 도화선의 의미)를 꿈꾸며 지난해 8월 스스로 회사를 창립했다.

기술 하나만 갖고 시작한 연구소 형태의 회사는 경기 테

크노파크의 G창업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인터뷰가 있던 3월 16일에는 천안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부터 기술을 인정받는 좋은일이 있었다. 연구원은 부품관련 기술을 보유한 10인 이상 기업을 지원하는데 3인 기업으로서는 파격적으로 협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다. 실패, 실패, 실패 수개월동안 계속돼온 실패를 뒤로하고 이어 온 노력이 작은 결실을 본 것이다.

박 대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자신만의 노하우인 실험계획법을 적용해 시행착오를 없애고 개발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기술창업은 기술을 개발해야 비로소 사업화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간과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박재운 대표는 기술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기술관련 컨설팅을 해주며 필요한 운용자금 일부를 충당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과학부의 기술사업화 부문에 기술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자문위

원으로 위촉되어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지원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진정 바라는 일은 하루빨리 회사가 궤도에 올라 기술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기간을 박 대표는 3년 후인 2018년으로 잡고 있다. 보통 창업자들이 2년 이내에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원하는데 그는 3~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때의 매출 목표는 100억.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개발의 여지가 많고 신기술이 필요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업계에서 망하는 기업도 많지만 그는 이런 개발 하나하나가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지만 기술창업은 그이상의 것이다. 세상을 이롭게 바꿀 수 있다.”며 인터뷰를 끝맺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우리동네 상공인 이야기 II

초지동 구뚝방 이정호 씨 “구두와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자리한 구뚝방. 점심시간이 지나자 한 명, 두 명 손님들이 구뚝방을 찾는다. 내 발걸음을 안내한 구두를 벗어 구뚝방 주인장에게 상태를 점검받고 수선을 의뢰한다. 오후 내내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는 이정호 씨(46세, 고잔동)를 만나 구뚝방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정호 씨의 구뚝방이 초지동우체국 맞은편에 자리 잡은 지 4년이 넘었다. 일요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거의 단골손님으로 운영되고 있다. 처음 구두에 관한 기술을 배울 때는 중앙동에서 시작했다. 그곳은 상가라서 그런지 구두 광을 내는 손님이 많았다. 그러나 초지동은 광보다 수선하는 단골손님이 많고, 남자보다는 여자 고객이 더 많다.

취재를 위해 구뚝방에 앉아 있었던 30여 분 동안 대여섯 명의 손님이 다녀가 일손이 바빴다. “손님이 많다.”는 말에 이정호 씨는 “오전에는 손님이 거의 없고 오후가 되면 좀 많

아진다.”고 귀띔한다.

이정호 씨가 한달에 평균적으로 수선하는 구두는 약 200 켤레. 경기가 좋을 때는 250~300건 정도의 수선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다. “수선의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대략 200건 정도는 해야 먹고 산다.”며 활짝 웃는 이정호 씨. “중국산 신 신발들이 많이 들어와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선을 잘 안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구두, 오래 신으려면 자주 닦아줘야 합니다.”

초지동 구뚝방에 굵을 교체하러 온 한 아저씨는 “결혼할 때 샀던 구두인데 버리기는 아까워 굵을 교체하러 왔다.”고 한다. 두 켤레 모두 굵을 갈고 광을 내니 새 구두가 되었다. 그는 “신발이 좀 무거운 듯해 자주 신지 않았다. 결혼할 때 산 구두라 정도 들고 해서 수선했는데 새 신발이 되었다.”며 뿌듯해 했다.

이정호 씨가 밝히는 구두 오래 신는 법. “자주 닦아줘야

한다. 구두를 닦는 것은 광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죽도 파부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자주 닦아야 한다. 굵도 제때 갈아줘야 하고 신발이 젖었을 때 햇빛에 말리지 말고 그늘에 말려야 한다. 또 땀에 젖은 가죽이 마르도록 여러 켤레의 신발로 번갈아 신는 게 좋다. 신발장에 습기를 제거하는 제품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이정호 대표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n70@hanmail.net>

미니 인터뷰 II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성포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는 황영은 원장



황영은 원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손익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접근하게 되면 직업이란 녀석은 이내 불편한 얼굴을 보이기 마련이다. 자신의 직업을 새로운 가치 부여로 재조명하는 황영은 원장을 만나보았다.

Q 미용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A 제 이름으로 미용실 문을 연 건 1991년이었어요. 그전에는 미용실 직원으로 일을 했죠.

Q 굉장히 오랜 시간 미용업에 종사하셨는데 그간의 시간을 회고해 보신다면?

A 아이 셋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도 늘 도와주는 남편과 잘 자라준 아이들 덕분에 힘들다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Q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A 예전에 비해 요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때로는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되었을 때 비축해 둔 자금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Q 30년이란 세월 동안 한 우물을 파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매력에 있나요?

A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께 항상 감사하죠. 그 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런 노력이 다시 손님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죠. 그러다보니 저의 재능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재능을 나누다 보니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제 일은 곧 제 행복의 근원이랍니다.

Q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서 하시는지요?

A 처음엔 혼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2008년부터 상록구 미용인들로 구성된 아미희(아름다운 미용인들의 모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죠. 현재는 경로당과 주민센터, 선진학교에서 월1회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A 처음엔 경계심을 갖던 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다가오고, 기다려줄 때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Q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요?

A 몇 번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기능장 시험에 도전하려고 해요. 올해 꼭 기능장 시험에 합격해서 교도소에 있는 제 소자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살면서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살아야 발전이 된다.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베풀다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일하는 엄마와 살면서 독립적으로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지금처럼 제 일과 더불어 나누며 살면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수인선 협궤철로변 테마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단원구 테마 생태 공원 가꾸기 사업 시동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작으로 활기찬 출발

단원구는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작과 함께 수인선 협궤철로변 테마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수인선 협궤철로변 공휴지에 구절초 테마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힐링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구절초 특산물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품을 개발 생산토록 지원하여 수익금 일부를 관내 취약계층을 후원하여 생활안정 도모와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특화 사업으로 현재 60세이상의 취약계층 노인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구절초 테마 생태공원내 어린이 미로공원, 미니 축구장, 체험 학습장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전철 교각 하부 통행로를 깨끗이 정비하여 전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원구의 유희지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 친화적 생태 문화공간과 자연학습장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단원구 건설행정과



안산갈대습지공원에 수달가족이 나타났어요

수달 외 남생이,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천국으로 거듭나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 가족이 안산갈대습지공원에 나타났다. 수달이 갈대습지공원에 흔적을 남긴 것은 2~3년 전부터이다. 특유의 냄새가 있는 배설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던 수달이 올해 3월초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처음엔 두 마리만 보였지만 현재는 총 6마리가 이른 새벽시간과 밤늦은 시간에 활동하고 있다.

몸집으로 보서는 한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재 수달 가족은 습지공원 측이 마련해 준 쉼터와 갈대나 부들이 넘어져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사람을 잘 따르는 수달은 몸길이 63~75cm, 꼬리길이 31~55cm, 몸무게 5.8~10kg로 수중생활에 적절하다. 물이 있는 환경을 가장 좋아하며 발톱이 약해서 직접 땅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고 먹이로는 주로 비늘이 없거나 적은 메기, 가물치, 미꾸리, 개구리, 게 등을 먹는다. 작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먹고, 큰 물고기는 물가로 끌고 나와서 먹는다. 번식기는 1~2월이며 임신기간은 63~70일이고, 한배에 2~4마리를 낳는다.

우리나라는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하였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환경정책과 환경전문위원이자 환경지킴이로 잘 알려진 최종인 씨는 “사라진 종(種)을 지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지켜주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습지공원에는 이외에도 남생이(천연기념물 제453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등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이 원래의 모습과 가까워질 때 자취를 감췄던 동식물도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듯 자연스레 스며들어 터전을 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참치는 과학, 참치의 생명은 해동에 있습니다” 사조회참치



안산문화광장 주변 사리골 참치거리에는 자칭 ‘참치 명인(名人)’이 운영하는 ‘사조회참치’가 있다.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수 맛집(은상)’을 받은 ‘사조회참치’의 조리장이면서 참치 연구가인 정문석 대표(54세)는 “이곳에 터를 잡은 지는 6년, 참치만을 연구하고 조리한 지는 30여 년이 됐습니다. 사리골 참치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준이 높아요. 보다 좋은 단계의 참치와 뱃살 등 좋은 부위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며 참치 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컸다.

참치로 알려진 다랑어는 고급 횡감 어종으로 태평양과 대서양 등 전 세계 해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식도락가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보니, 최상급 참다랑어는 한 마리에 수천만 원씩 거래된다.

참치는 크게 5종으로 분류된다. 가장 크고 검푸른 빛이 도는 참다랑어가 으뜸이고, 눈이 큰 눈다랑어도 고급 참치에 속한다. 옆 지느러미가 긴 날개다랑어와 노란색 지느러미의 황다랑어, 작지만 가장 많이 잡히는 가다랑어 순이다. 아래로 갈수록 통조림 가공용으로 소비된다.

다랑어는 회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몸 전체의 60% 정도다. 머릿살과 아가미 바로 뒤쪽의 가마살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뱃살과 등살은 고소하고 기름진 게 특징이다. 특히, 대뱃살과 중뱃살, 등지살은 일본에서도 최고급 횡감으로 인기가 높다.

로 인기가 높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중이던 최승우 씨(27세, 초지동)는 “입에서 살살 녹는 참치회는 물론 초밥, 전복, 바닷가재 등 사이드 메뉴가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니 우수 맛집으로 지정된 소문난 안산 맛집이었네요.”라며 웃었다.

열여덟 살 때부터 일식 요리를 배우다 참치의 맛에 빠져 들어 참치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정 대표는 “참치의 생명은 해동”이라고 말한다.

“의료계에서 쓰이는 인공수정도 냉동과 해동 과정을 거쳐 세포를 살려내듯 영하 50℃에서 급속 냉동한 참치를 활어처럼 살려내는 일은 과학입니다. 적정 온도에서 해동을 한 참치는 다시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3시간 이상 저온 숙성한 참치는 맛은 물론, 영양소도 6~8배 정도 향상돼요. 술이 익는 것처럼, 사람이 철이 드는 것처럼 회도 숙성을 거쳐야 완전식품이 됩니다.”

두뇌 발달을 돕는 DHA가 많이 들어 있는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손꼽힌다. 칼슘·비타민·오메가-6 같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 EPA(Eicosapentaenoic Acid)와 DHA가 많아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줄여 고혈압·비만·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을 돕는다.

참치해동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는 1997년부터 참치 해동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를 하면서 ‘참치는 각 부위마다 해동의 염도나 온도, 시간을 모두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종류별, 부위별, 등급별로 각기 다른 참치의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5년의 연구 끝에 해동기계를 만들어 지난 2001년 참치해동 실용신안 등록 특허를 받았다.

대한민국에서 참치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참치 명인’이라는 닉네임을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그는 올해 대학 ‘호텔관광과’에 복학을 했다. 기능장 시험에도 다섯 번째로 도전한다.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정 대표는 “내가 해동 음식을 통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손님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참치 요리로 ‘2013 전국 해산물 경연대회’ 동상에 이어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맛집 ‘사조회참치’가 안산 맛집을 넘어 참치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참치전문점 명가로 우뚝 서기 바란다.

• 문의 : 사조회참치 ☎ 031-439-1315

• 주소 : 단원구 광덕2로 193-19(고잔동 768-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환경도 살리고 삶의 질도 높이는 재활용 나눔장터

안산문화광장에서 28일 개장,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열린다

환경도 살리고 삶의 질도 높이는 재활용 나눔장터가 3월 28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첫 개장한다. 나눔장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단, 7월은 휴장하고, 9월은 19일에 열린다.

나눔장터에서는 누구나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다.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하고 나눔장터로 오면 된다. 하지만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핸드메이드를 포함한 새 물건은 판매할 수 없으며,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 가능하다.

나눔장터에서는 재활용 물건의 구매·판매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 도자기 체험과 솟대 만들기 등의 예술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폐가전제품(휴대폰, 게임기, MP3),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면 친환경물품을 받을 수 있고, 소형가전(토스

터, 믹서, 선풍기 등)과 교육교구(멜로디언, 탬버린 등)를 가져와 판매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는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개장이벤트로 헌책 3권 이상 기증하는 사람 선착순 50명에 한해 화초모종을 선물로 나눠준다.

한편 나눔장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중고 교복도 판매하며,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확인서도 발급해 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서 재활용 나눔장터를 통해 덜 사고 덜 버리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훈련해 보는 건 어떨까.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 031-486-5105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다시 시작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액션!’ 5월 1일 개막, 10개국 61작 내외의 작품 선보여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국내 48작, 해외 13작의 총 61여 거리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공간 확장을 위해 지역연계 프로젝트인 ‘프리페스티벌-원곡동’을 신설해 4월 30일에 다문화의 상징적 공간인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플래시몹 공연과 축제 참가작 일부가 공연되어 사전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액션! (City in Action)’

축제 슬로건인 ‘액션!(City in Action)’은 관객과 보다 능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몸짓’과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되는 ‘큐’사인을 의미한다. 마음 한 편에 묻혀 있는 아픈 기억들을 외면하는 대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을 배움하며 거리예술 안에서 적극적인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치유의 축제를 치르고자 한다.

그 첫 발걸음은 창작그룹 노니 <안.녕.安.寧>과 프랑스 에어로스컬처 <비상>에서 시작된다. 현대적으로 해석된 길놀이와 하늘을 수놓는 흰색 벌룬 인형들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며 시민의 마음을 보듬어줄 예정이다.

공식참가작 - 거리예술의 새로운 방향 제시하는 12작품

축제 공식 참가작으로는 개막작 <안.녕.安.寧>과 <비상>을 포함, 거리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의 총 12작의 거리예술작품이 선정되었다.

바람들의 숨바꼭질로 시작되는 놀이 한마당 <안.녕.安.寧>, 대형 공중극 <비상>, 페인팅퍼포먼스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 <조화로운 삶>, 불꽃 아트 <파이로 아트웍>, 해학음악극 <당나귀 그림자 재판>,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 사운드아트 <메가폰 프로젝트>, 미디어아트인 무용극 <철의 대성당>, 러닝머신 위에서 42.195km를 달리는 퍼포먼스 <편린 인 안산>, 모래로 순간을 기록하는 설치미술 <거리의 시인>, 아크로바틱 <납겨진 사람들>이 펼쳐진다.

자유참가작 - 실험적 시도의 거리예술 14작품

인형극 <제랄다와 거인>, 타악 퍼포먼스 <대동궁>, 선택에 관한 오브제극 <No답>, 침묵의 마임극 <우산이 필요해>, 어쿠스틱 악기로 들려주는 음악 공연 <집으로>, 침묵의 리

듬을 표현한 무용극 <신발>,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장터 <예술장돌뱅이>, 춤극 <스텝 바이 스텝>, 슬랩스틱 코미디 인형극 <빈대떡 신사>, 소박한 요리이야기 <자전거 식당>, 퍼레이드 공연 <황금영혼>, 현악 4중주 라이브 공연 <북아현 코스모스>, 브라질리언 리듬의 공연 <봄을 노래하다>, 언버벌 신체극 <Killing Time> 등 14작품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다양한 거리예술이 온다.

광대의 도시 - 다양한 광대극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13작품

올해 신설한 ‘광대의 도시’ 프로그램은 익살스런 몸짓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해학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공유하는 광대들의 신명나는 놀이판이 벌어진다.

광대극 <블랙 크라운>, 신기력, 불쇼 등 코믹 차력 <발랄 살벌! 등당에 차력단>,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뻔하지 않아서 뻔(Fun)한 광대극 <나홀로 서커스>, 관객 참여형 전통 광대극 <The 광대 각설이 놀음-황금거지>, 풍물놀이 한마당 <와리골 광대들>, 두 명의 광대와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미디 서커스 쇼>와 마임 공연 <그린 티>, 슬랩스틱 코미디와 미술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 마임극 <투맨>, 저글링 쇼와 마임의 즉흥극 <아타리 쇼>, 코미디 마술 쇼 <퍼니키토 쇼>, 미녀 대신 펠트 꼭두각시 인형과 함께하는 마술 쇼 <쿠쿠라쿠>, 관객의 도움으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마술 이야기 <도쿄매드 크라운 쇼>, 만화의 세계에서 튀어나온 슈퍼히어로의 코미디 쇼 <코미디 히어로 쇼>가 시민을 기다린다.

지역과 함께, 액션 - ‘안산’의 이야기 5작품

설치미술 형태의 연극 <안산 순례길>, 지금은 사라지고 잊혀진 도깨비와 야시장의 신나는 부활 프로젝트 <도깨비 야시장>,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풀어내는 심리무용극 <W.C(웰컴)>, 길바닥 사진전 <스트리트 픽스 토그램>, 안산에 사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등 10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2인극 <울모스트, 단원> 등 5작품은 ‘안산’이라는 도시와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 심도 깊은 예술적 탐구를 통해 지역의 창작 기반 형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과 함께, 액션 - ‘우리’가 축제의 주인

올해 축제는 국적,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축제의 조각들을 채워나간다. ‘우리’의 의미를 극대화시킨 <위대한 도시:그랜드 콘티넨탈>이 3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아시아 최초로 안산에서 공연되는 대형 커

뮤니티 댄스 작품인 <위대한 도시:그랜드 콘티넨탈> 공연을 위해 춤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시민댄서 160여 명이 다양한 난이도의 동작들을 연습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 (☎ 031-481-0540)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현대미술의 실험적 경향 엿보기 대부도 경기창작센터 상반기 기획전



정진경 ‘데모하기 좋은 날’

경기창작센터는 오는 5월 18일(월)까지 ‘2015 경기창작센터 상반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5 경기창작센터 창작공모 선발작가와 기 입주작가(2014 창작공모 및 기획레지던시) 6명이 참여하는, 현대미술의 실험적이고 재기발랄한 경향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영상 설치, 공간 설치, 회화 및 드로잉 설치 등이 전시되는데, 특히 전시 첫날인 3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신규 입주 작가 프리젠테이션과 작가와의 대화 시간은, 창작센터 작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경기창작센터는 오픈 하우스 프로그램 형태로 시범 운영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가을에 열리는 축제형 오픈스튜디오와 함께 창작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 (☎ 032-890-482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4.16 희망과-길찾기

안산시민 토론은 계속됩니다

416희망과길찾기 안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안산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4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더욱 심화시켜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후속토론**을 진행합니다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토론회로 소통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청소년 자유를 위한 지원 대금도 행사

[테이블1]
주제 : 안산공동체 어떻게 회복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
3월28일(토) 2시-6시, 안산시청 대회의실

도시활성화 이미지개선

창출한 문화가 갖춰야 할 도시로써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도시

[테이블2]
주제 : 도시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이미지 개선을 이룰 것인가
3월28일(토) 2시-6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진상 규명

진상규명 시민행동 안산시 '질 서리화' 대응/ 진상규명 절차 진상규명 전문가 확보, 세월호 진상규명 다양한 소문해설, 정확한 정보 제공

[테이블3]
주제 :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4월4일(토) 2시-6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전한 안산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도시 안산 만들기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테이블4]
주제 : 안전한 안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4월4일(토) 2시-6시, 안산시청 대회의실

참가신청
온라인 goo.gl/nioEu3 전화 031-401-4160
주최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1,000인 원탁토론 추진위원회

시민이 직접 나서는 ‘4.16 희망과 길 찾기’ 공동체 활성화, 도시 이미지 개선, 진상규명, 안전 사회 주제로 토론회 진행

‘4.16희망과 길 찾기 안산시민1000인이 말한다 (이하 1000인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4가지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후속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1,000인 토론에서 나온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번 후속토론회는 공동체 활성화, 도시 활성화 이미지 개선, 진상규명,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산시민들의 제안이 나오게 된다. 이 제안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의지를 천명하는 시민선언으로도 추진될 계획이다.

후속토론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황 자료를 신청한 시민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회에서도 설명 시간을 따로 배정해, 현황을 토대로 한 정책이나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토론 결과로 10개 내외의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장단기 과제, 정부와 안산시, 안산시의회 요구사항 및 시민공동실천과제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3월 28일 토요일 2시에는 ‘안산공동체 어떻게 회복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테이블이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같은 시각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미지개선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4월 4일 토요일 2시에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테이블이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같은 시각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안전한 안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후속토론에는 안산의 많은 시민단체들과 주민 참여 조직들이 실무단체로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세월호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으로 안산이 치유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참가신청 : goo.gl/nioEu3
•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1,000인 원탁토론 추진위원회 : ☎ 031-401-4160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분향소 아이들 얼굴 보면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의 노란손수건’이 나누는 노란리본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들이 '진실을 인양하라'는 포스터를 들고 있다

여고생 몇 명이 망설이며 다가와 “노란리본을 더 가져가도 되나”고 물어온다. 엄마들은 그때마다 학생들을 꼭 안아주며 노란리본 한 움큼씩을 손에 안겨주곤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16일 저녁, 중앙역에서는 시민들에게 세월호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란리본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직후 안산에 살던 엄마들이 만들었던 다음카페 ‘엄마의 노란손수건(이하 노란손수건)’ 모임에서 매주 월요일 중앙역에서 진행되는 ‘노란리본 나눔’ 행사가 이날도 변함없이 열린 것이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세월호 인양촉구를 위한 서명용지에 사인을 하기위해 먼저 다가오는 젊은이들도 많았고, 전철을 놓치면서도 꽤 시간이 걸리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문구에 꼼꼼히 답하는 많은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그룹은 단연 고복을 입은 학생들과 20대 청년들이었다. 이날, 동네 아줌마처럼 젊은이들 가방에 노란리본을 직접 달아주고 “진심으로 고맙다”며 학생들 등을 토닥여 주던 노란손수건 엄마들의 넉넉했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Q: 어떻게 중앙역에서 홍보 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진찬맘 (ID): 세월호 기억저장소에서 열렸던 유가족 간담회에서 ‘젊은이들이 세월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성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서 홍보하게 됐다. 이제 14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너무 추위 손도 안 꺼내려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반응이 매우 좋다. 줄서서 기다려 서명도 해주시고, 먼저 노란리본도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 평소에는 서명 200명 정도 받았는데, 오늘은 400명쯤 될 것 같다.

Q: 활동을 하며 느끼는 점이 있다면?
정세경 (ID):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신다는 것을 거리에 나오면서 알게 됐다. 세월호 인양이 아직도 안됐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 분들도 꽤 있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철역처럼 바쁜 장소에서도 시간 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Q: 지난 1년 동안 노란손수건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다면?
내가 (ID): 사실 안산에 살면서 세월호 참사에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한집 건너 한집이 관련되어 있다. 눈 감으려하거나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관심이 유지되면 여기저기 발을 떼기 힘들어진다. 분향소에 가서 아이들 영정사진 속 얼굴들을 보고 오면 ‘내가 나약해질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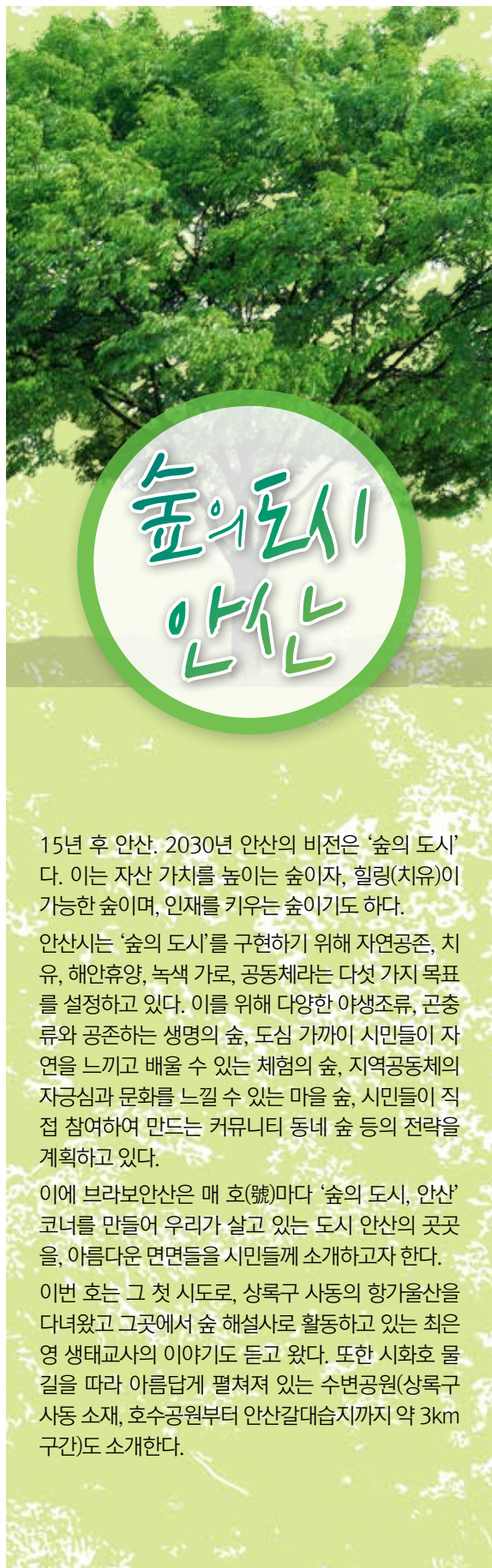
정세경 (ID):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이제 누가 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 자식 키우는 엄마니까 지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뒤통수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된다. 더 이상 4.16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어떤 거대한 벽 앞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감이 들 때도 있다. 그래도 무엇보다 계속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노란손수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회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었다. 퇴근하자마자, 시화에 있는 식당 일을 마치고마자 바로 달려와서 저녁식사도 거른 채 세월호 인양과 진실을 위해 피켓을 들고 서명을 받고 노란리본을 나누며, 어떤 목소리를 전하고 있었다.

노란손수건 회원들은 지금까지 오전 개 이상의 노란리본 배지를 구매해 학생들에게 배포했고, 노란리본도 직접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또, 분향소에서 열리게 될 1주기 행사 때도 참여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엄마의 노란손수건 카페 <http://cafe.daum.net/momyh>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마을 숲' '항가울산림공원' 이야기



주말을 맞아 항가울 산림공원을 찾아 산책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하루가 다르게 찾아오고 있는 봄을 느낄 수 있다.



상록구 본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항가울산의 모습. 주택가 뒤로 보이는 완만하게 보이는 능선이 항가울산이다.

“새벽 산책길엔 고라니도 볼 수 있어요”

항가울산은 상록구 사동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높이 101.4m의 낮은 동네 산이다. 아파트단지와 다가구주택 병존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 산은 동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항가울이란 이름은 충청도 한 선비가 이곳 산 지형을 보고 ‘큰 인물이 나올 곳’이라 하여 항가울산이라 이름 짓고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산 위치가 사1·2·3동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고 산을 사이에 두고 각 동이 다 연결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항가울산의 산책코스에서 운동도 하고 가족들과 산책을 즐긴다. 초당초등학교 인근 산에서는 약수가 나오는 곳도 있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항가울산은 큰 나무가 많아 1년 내내 음침한 편이다.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의 나무들도 많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야생화도 발견할 수 있다.

항가울산에 살고 있는 새 종류로는 오색딱따구리와 박새, 곤줄박이가 있고, 상위포식자인 칩부엉이도 발견된다. 청설모와 토끼도 많이 볼 수 있다. 시화호 갈대습지와 이어져 있는 항가울산은 다른 산에 비해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가 용이하며 먹거리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시화호를 왕래하며 잎이나 열매를 따먹는 고라니도 이곳에서 자주 발견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이지만 등산객이 드문 새벽이나 아침에는 풀숲에 숨은 고라니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시화호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곳의 고라니 개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항가울산은 초당초등학교, 석호중학교, 석호초 등 여러 학교에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생태교육을 위한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 산에서는 마을주민조직인 갑골주민회가 운영하는 토요 생태수업 ‘마을 숲 이야기’도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참여하는 이 생태교육에서는 아이들이 항가울산을 직접 돌면서 다양한 나무와 식물, 곤충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숲에서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갖는다.

항가울산에 인접한 석호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생태교육 수업도 진행하게 된다. 교과서와 연계해서 학교 주변의 자연 생태를 관찰하고, 숲에서 나온 재료들로 체험활동 및 놀이수업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풀뿌리환경센터의 생태안내자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석호초 학부모들이 1,2년 정도 걸리는 생태안내자 과정을 직접 이수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시화호 줄기를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

갈대군락지, 시화호, 일몰 등 볼거리 풍성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수변공원(사동 6745, 1646번지)을 달린다. 기꺼이 손을 흔들어 반기는 동호회 회원들의 자전거가 봄빛을 따라 빠르게 움직인다.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삼삼오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수변공원으로 모여든다.

수변공원은 시화호 줄기를 따라 조성된 공원이다. 호수공원과 시화호갈대습지공원을 잇는 산책형 도로로 조성된 공원이다. 길이는 편도 3km로 갈대군락지나 시화호, 일몰 등 볼거리가 풍성해 출사(사진촬영) 장소로도 인기다. 시화호 주변지역 생태환경의 보전과 친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근린공원으로 야간에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모티브로 한 온화한 조명연출로 쾌적한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산책로 중간 중간 설치된 나무 테크에는 조명과 벤치가 설치되어 산책하다 쉬어가기도 안성맞춤이다. 폐장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변공원은 지난 2009년 완공되었으며 게이트볼장, 야외헬스장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로 구분되어 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동 '수변공원'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숲과 함께하는 사람들

숲에서 자라는 사1동 생태안내자 최은영 씨 “동네 숲에는 우리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2012년 봄, 숲과 자연 생태에 관심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함께 동네 숲을 탐험하며 시작된 사1동 생태교육 동아리 ‘마을 숲 이야기’는 올해로 3년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이 생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숲에서 마음껏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평범한 주부로 감귤주민회 동아리 보조교사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마을 숲 이야기 생태교육을 이끌고 있는 생태안내자 최은영 씨를 만났다. 숲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한 기운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Q: 어떻게 생태안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됐나?

A: 안산 플뿌리환경센터에서 하는 생태안내자과정을 2년 동안 이수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수업을 하며 모자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다. 산에 가서 모르는 나무나 꽃을 보면 일단 사진을 찍어두고, 집에 와서 도감이나 인터넷을 통해 꼭 찾아본다. 그렇게 하나씩 새로운 식물, 곤충들 이름을 알아가게 된다.

Q: 생태안내자 시각으로 보는 사동의 자연환경은?

A: 동네에 산이 있다는 것도, 큰 나무들이 골목골목에 많다는 것도 여유를 준다. 특히 사동은 큰 건물도 없고, 뒤돌아서기만 하면 사방에 산이 있어 더 좋다. 산을 따라 둘레길도 만들어졌는데 아쉬운 건 등산로 길을 알려주는 표지나 지도 등이 없다는 것이다. 향가울산에는 고라니도 많이 볼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뒷산에 갔는데, 고라니가 철조망 뒤에서 마치 자기가 개인 것처럼 숨어있는 것을 본 적 있다.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는 도로를 건너고 있는 고라니를 본 적도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인 고라니도 보게 된다. 동물 보호가 잘 됐으면 좋겠다.

Q: 마을에서 생태교육을 진행하며 기억에 남은 일들이 있다면?

A: 아이들과 3년 정도 이 동네 숲을 누비다보니 이제 우리들만의 아지트도 하나 생겼다. 숲속에서 우리들만 아는 공터를 하나 발견했다. 파듯할 때는 수풀이 우거져 보이지 않다가 나무가 황량해지는 겨울에만 보이는 공간이다. 거기 타이어도 하나 매달려 있어 아이들이 타잔놀이도 할 수 있고, 벅커도 있어서 아이들이 숨바꼭질하기 제격이다. 우리



향가울산 생태교육 후 사1동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 잘 숨겨놓고 왔다(웃음). 날이 풀리면 아지트에 통나무도 갖다놓고 해서 아이들과 그 공간을 우리들만의 놀이공원처럼 만들어볼 생각이다.

Q: 마을에서 하는 생태교육이 아이들에게 좋은 점은?

A: 아는 체도 안하고 시큰둥하게 있던 아이들도 산에 가자고 하면 화색이 돈다. 산에 가면 아이들이 여유로워지고 느그러워진다. 숲은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애들이 집에서는 주어진 것만 가지고 놀지만, 산에 오면 생각하고 만들어서 놀아야하기 때문이다. 숲에서는 내가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나뭇가지 하나 주위와 이걸로 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선생님에게 가르쳐준다. 게임을 하나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자기 식대로 규칙을 변형해 새로운 놀이를 고안해서 놀게 된다.

Q: 숲에서 아이들은 뭘 하며 노나?

A: 보통 공벌레를 찾아와봐라, 예쁜 꽃을 찾아와라, 미선

을 주고 그걸 찾아와 구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려보면서 수업이 진행된다. 신기하게도 애들이 다 찾아온다. 밤을 주워오라고 했는데 잘 못 찾는 아이들이 있으면, 잘 찾는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게 한다. 보통 여자애들은 소꿉놀이를 자주하고, 남자애들은 나무에 고무줄 달아서 인간새총 놀이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숲에 있는 나뭇잎이나 꽃을 이용해 패션쇼를 하기도 했다.

Q: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숲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교실이고, 자연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교과서”라는 구절이다. 아이들한테는 산에서 노는 활동들이 가장 좋은 추억이고, 산 자체가 교실이다. 처음 생태 수업할 때는 엄마들이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거나 너무 춥다는 이유로 안보내기도 했는데, 사실 아이들은 산에 가면 기운이 펴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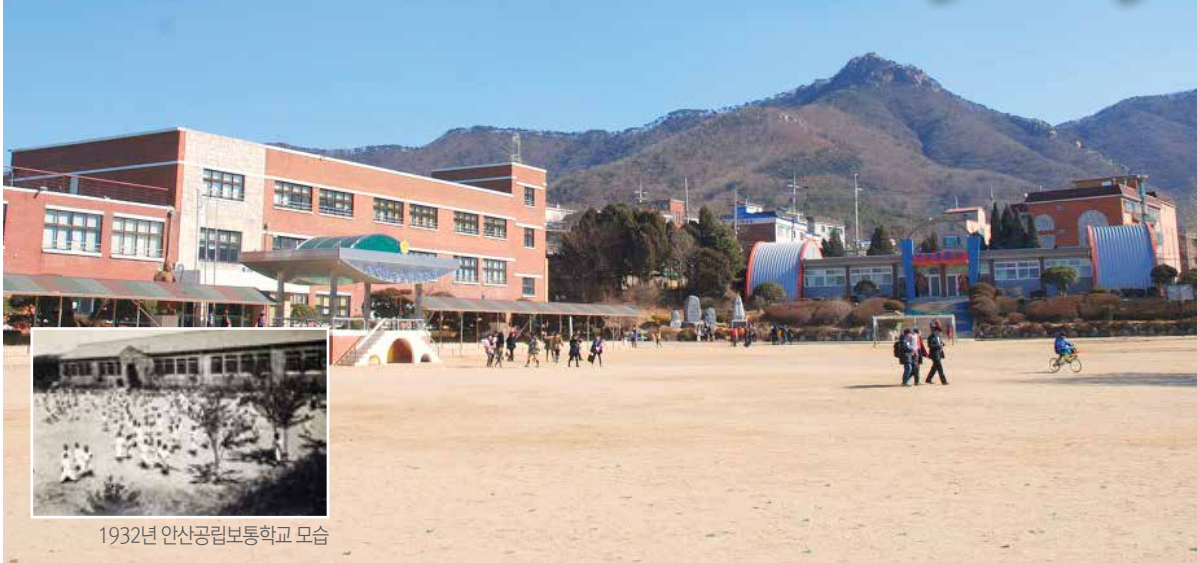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 안산

116주년 역사의 안산초등학교

땅굴을 파고 위에 짚을 얹어 공부하던 토막교실의 전설



1932년 안산공립보통학교 모습

현재의 안산초등학교 전경

책걸상을 사용하고 서구의 학문을 공부한 안산 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어디였을까? 안산동 수암봉 아래에 위치한 안산초등학교는 경기서남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교육기관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서울 교동초가 1894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1899년에 개교한 안산초의 역사는 전국적으로도 오래된 것이다.

1895년 고종황제의 ‘소학교령’이 반포된 이후, 안산초는 1899년 9월 ‘안산군공립소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다. 안산군공립소학교에 대한 자료는 다수 존재한다. 1899년 11월8일자 대한제국 관보에는 당시 교원 임명기록이 남아 있으며, 1908년 4월 30일자 황성신문에는 ‘공립안산군 보통학교 낙성식 민간인 모금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1911년 1월에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향교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품의서와 이를 보도한 대한매일신보 기사도 볼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후 전국 소학교가 조선총독부 관제로 개편되면서, 일본인 교장들이 임명된다. 안산초도 1911년 일본인 교장 다카쓰카(高塚晴久)가 부임하게 되면서 1912년 4월에 안산공립보통학교란 이름으로 재개교하게 된다. 이때 안산향교를 교사로 하여 2학급이 편성되고, 1916년 9월에는 수암면사무소 옆의 새로운 교사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학생들의 꾸준한 증가로 1924년 11월에는 교실 4개를 신축해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된다.

4년제 보통학교로 시작했던 안산공립보통학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6년제 학년연장운동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마침내 1937년 5월부터 6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그 해 2개 교실이 증축된다. 당시 일본 총독부의 정책 때문에 4년제 보통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입학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학년연장운동을 벌였던 것. 그레

서 1937년과 1938년에는 학교 졸업생 기록이 없다. 그 후, 1941년에는 ‘안산공립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일제에서 해방되던 1945년 4월에는 7학급이 편성된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 중국군이 수리산에 주둔 하며 수암면이 격전지가 되면서 동네에 집이 몇 채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폭격을 당하게 되고, 이때 학교도 완전히 파괴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3년 정도 근처 향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향교의 자취도 사라진 상태다. 전쟁 때 학교가 사라지면서 모든 자료도 다 분실되고 파괴됐는데, 이때 교가도 없어져 나중에 새로 부임한 교장이 새로운 교가를 다시 만들게 된다. 현재 안산초 100주년 기념비 옆에 교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

현재 수암동 안산초 앞에 위치한 L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안산초 50회 졸업생 이현덕 주민을 만나봤다. 수암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씨는 “그 당시에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6학년 때 고잔초가 생기기 전에는 일동이나 시흥·안양시 경계에 있던 마을에서까지 아이들이 보자기에 도시락 들고 다닐 정도로 이 동네가 교육적으로 발달한 동네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동네 어른들과 이야기하며 들었다는 6.25때 안산초 토막교실 이야기도 들려줬다. 땅굴을 파서 그 위에 짚을 얹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토막교실의 모습도 현재 사진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지금도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과 만날 때면 어린 시절 수암봉에서 쥐불놀이를 하고 막 애들하고 싸우면서 놀던 기억들을 웃으며 이야기 한다. 그땐 왜 그렇게 만나기만하면 싸웠는지 모르겠다.”는 이 씨의 너털웃음이 슈퍼마켓 문밖으로 흘러나온다.

2015년 2월, 안산초등학교는 10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연속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받고, 창의적인 교육방법들을 개발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원일중 신대광 교사는 “안산공립소학교는 안산지역 근대 학교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안산의 근대교육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 신대광의 안산역사이야기, 안산시사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이 달엔 어떤 책을 읽을까’
중앙도서관 추천도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봄날은 간다’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 아름다웠던 청춘이 사라지듯이 가버린 봄날에 대한 절절한 후회가 전해져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청춘과 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내 계절,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아름답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책을 읽으며 다시 찾아온 봄을 만끽해보자.

아동

남대문의 봄

현숙 / 책과함께어린이



서울의 수문장인 남대문의 600년 역사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감성지식 책이다.

남대문이 처음 세워지고부터 2008년 화재에 이어 2013년 복원까지 이르는 시간을 계절로 구분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남대문이 당당히 열린 시기를 ‘남대문의 봄’, 조선이 무르익어 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남대문의 여름’, 태평한 조선과 일본이 침략하기 이전까지를 ‘남대문의 가을’, 성벽이 무너지고 한국 전쟁을 겪은 때를 ‘남대문의 겨울’ 그리고 화재 후 복원된 오늘날을 ‘다시 남대문의 봄’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역사 속 남대문을 차분히 짚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멀리 있는 딱딱한 문화재가 아닌, 가까이 있는 친근한 남대문을 만날 수 있다.

청소년

다시, 봄

장영희 / 샘터



살아 있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삶의 축복과 희망에 대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장영희 교수의 5주기를 맞아, 한 일간지에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1년간 연재되었던 120편의 칼럼 중 계절에 관한 시 29편을 담아 책으로 엮었다.

부드러운 듯 강한 삶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장영희 교수의 글과 거칠고 개성이 강한 듯 여리고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김점선 화백의 그림이 조화를 이룬다.

나란히 봄에 떠난 두 사람이 보내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마음의 잔에 담긴 절망과 슬픔을 치유한다.

성인

겨울로부터 봄

노익상 / 청어람미디어



사람과 땅의 이야기를 찾아 국토를 수행하듯 걸은 사진가 노익상이 가난한 이들의 고단함과 치열함, 가족애와 그리움을 눈물로 버무려냈다.

이 책은 맨몸으로 거친 삶의 파도에 맞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가난한 살림집에서 살았던 이들이 부뚜막이나 불록 벽에 숨결로 그렸던 분필 낙서 같은 이야기이며 ‘각질 부스러기가 떨어진 누런 비닐 장판바닥에 앉아 들었던 곡절’이기도 하다.

작가가 길어 올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봄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당연하다는 듯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작은 희망의 증거를 찾기 바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수채화 동아리 '수미회'

안산을 너머 세계 무대를 꿈꾼다



수미회 회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격스러운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안산에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수채화 동아리 '수미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첫 회원전을 열 당시 초기 회원의 반 이상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회 때마다 개인별 작품작도 많아 실력을 갖춘 동아리로 칭송이 자자하다.

수미회 회원들은 모두 학창시절 그림을 동경하던 주부들이었다. 유일한 청일점이며 가장 연장자인 이정구 회원도 마찬가지다. 이정구 회원은 정년퇴직을 할 즈음 수미회를 찾았다. 늘 그림을 동

경해왔고 퇴직 후 취미생활을 위한 선택이 바로 그림이었다. 그림으로 소통하며 더러는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는 꿈보다는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고자 했던 수미회 회원들. 그 용기 있는 선택으로 젊은 날의 못 다한 꿈을 이루고, 그 꿈을 그림 속에 담는 행복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열네번 째 정기전... 열정 넘치는 안산의 화가들

수채화 동아리 '수미회'가 올해로 제14회 정기전을 연다. 수미회는 지난 2000년 4월 올림픽기념관에서 첫 정기전을 열었다. 상록수마을 월드컵문화센터에서 강대원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고 2년 만이다. 그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첫 회원전을 열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 접해본 이후 처음으로 수채화 물감으로 붓질을 하던 감



중국동포 이길복 씨의 안산살이

한국은 내 나라, 내 조국... 나는 뱃속까지 한국인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다문화 특구를 다시 다녀왔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중국동포 이길복 씨(60세, 원곡동)를 만나 그의 인생철학과 삶을 들여다보았다.

안산시 귀환동포연합회(회장 이길복)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 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한 쪽에 놓인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다문화특구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이길복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다문화특구 자율방범대장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활동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곡동 귀환동포 노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길복 회장은 독립유공자 이홍래(李鴻來)의 후손이다. 조부 이홍래는 을사오적 암살단으로 활동, 만주로 망명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중국에서 나고 자라 대학을 마치고 길림성 도문시정부 부국장을 지냈던 이 회장은 1997년 4월 중국공무원 생활을 접고 선친의 고향인 한국으로 입국했다.

형님이 먼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고, 몸은 중국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조상들이 살았던 한국 땅에 와 있었다고 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이라는 심리적 고향인 한국으로 온 뒤 이 회장의 자녀들도 모두 안산에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손주들이 태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그에게 "안산은 제2의 고향이자 여생을 보내고 뼈를 묻을 곳"이라며 뿌듯해했다.

그는 혼자 잘 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약자를 돕고 사회에 헌신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차고 빛나는 인생살이라는 좌우명을 갖고 중국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2003년 5월에는 '한중우호축전협회'를 설립,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중국연수생을 비롯한 많은 재한

중국인을 위해 체불임금, 산재처리 등을 도왔다.

이 회장은 "최근 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동포들의 강력사건으로 인해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싸늘해져 안타깝다"며 "다문화특구 자율방범대장으로서, 또 귀환동포 연합회장으로서 범죄예방간담회에 참석해 결의대회를 하는 등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낡고 피동적인 예방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판단하는 실효성과 안전성을 결합하는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입국비자와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특별순찰대를 운영,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또 "가로등, 보안등, CCTV를 늘려 다문화특구 특성에 맞는 합동예방 공동체제를 구성해 '맞춤형'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귀환동포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묻자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국적을 갖고 만주나 일본, 러시아 등지로 이주한 분들을 교포 1세라 부르고, 그 이후 타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교포 2세, 3세로 부릅니다. 교포라는 호칭은 행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며 한민족입니다. 민족의 개념으로 부를 때는 동포라고 부르는 게 맞지요. 귀환동포들은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이상 본토의 한국인과 차별 없이堂堂하고 뽕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라며 "홀몸으로 귀환한 동포 1세대들은 대부분 50세~75세 이상의 고령으로 직업이 없으니 수입도, 집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장례치를 돈도 없을 지경"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급진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현재는 IT강국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귀환동포들이 함께 잘 살아가도록 약자를 돕고 봉사하며 정의를 위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이길복 회장은 뱃속까지 진정한 한국인이며 또 안산사람이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수미회 특징은 소나무, 풍경, 한국 전통의 자수, 퀼트, 물방울 중심, 현대미술, 혼합 재료, 유화, 꽃 등 각 회원이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여느 전시회 작품들을 보면 한 사람이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 수미회의 작품은 테마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수미회 회원들은 그림을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국내 굵직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이름을 떨치며 안산을 빛내고 있다. 안산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더 나아가 세계무대를 꿈꾼다고 수미회 회원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수미회 제14회 정기전>

• 장소: 단원미술관 제2관 / 일시: 4월 7일 ~ 4월 12일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정찬합시다

봉사하며 삶 꾸는 서윤자·이경옥 씨

내 삶의 우선순위는 봉사입니다



서윤자(왼쪽), 이경옥(가운데)

지난 3월 11일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에 위치한 국민생활체육안산시자전거연합회(이하 자전거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서윤자(63세), 이경옥(56세)씨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차 보였다.

자전거연합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윤자 씨는 지난 2008년 와~스타디움에서 청소봉사를 시작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안산온마을센터에서 차량봉사를 주3회 하고 있다고 한다. "출장 심리상담을 하러 가는 상담사들을 태워다주고 기다렸다가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상담사들이 차량 봉사하는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봉사를 하기 전에는 자전거동호회 활동이 삶의 1순위였지만 현재는 봉사가 삶의 1순위라고 한다.

"윤자 언니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둘을 '빛과 그림자'라고 해요. 항상 붙어 다니니까 한 사람만 보이면 '그림자 어디 있어요?' 하고 물을 정도죠."라고 말하는 이경옥 씨. 2008년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자원봉사 전도사가 됐다고 한다. 봉사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이경옥 씨를 본 주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자신이 봉사하는 현장으로 데려간다고 한다.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음에 갈 때 꼭 데리고 가달라는 부탁을 받곤 한다. 이경옥 씨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탈북여성을 도운 이후 어떤 봉사활동도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안타까움이 컸다."고 한다.

자원봉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이다. 봉사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대상이라도 허물없이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소유한 이들은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한다

안산시·경기도·CJ… 발전소 건립 위한 MOU 맺어



연료전지발전소 협약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안산시는 3월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경기도, CJ제일제당과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료전지 사업자를 통한 3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시간당 40MW(9만가구 전력 공급 가능)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약 5만여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CJ제일제당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열은 안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국토부가 오는 4월 1일 공포 예정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 매입한 1만여㎡ 부지가 이듬해인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이후 CJ제일제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공장부지를 해제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기업SOS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

해 안산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재의견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시계획시설부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CJ제일제당의 투자로 이어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0년 묵은 기업규제를 풀어나가는데에 경기도와 안산시, CJ가 함께 힘을 합쳐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합리화의 성과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우수기업 CJ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축하한다. 조력,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진 대부도의 카본제(탄소) 제로시티 조성 사업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가 안산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시, 동네 서점 살리기 적극 나선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익계약 도서… 동네 서점에서 구매하기로



주말 오후, 100평이 넘는 서점에서 직원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다.

안산시는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익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구매를 안산시 내 서점운영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6일 안산시 서점연합회, 안산시 회계과 계약관계자, 도서관 운영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안산시 서점연합회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특히, 도서구매 입찰에서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안산시는 입찰로 연간 구입하는 것을 제외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익계약에 의한 도서 구입계약은 지역서점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21일 도서정가제의 90% 이상으로 서적이 거래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으나 당초 취지

와는 다르게 안산시 내 도서소매점의 경영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간담회를 열고, 도서소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점연합회 최창규 회장은 “시에서 서점연합회의 애로사항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을 약속해준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선사항은 소매서점 등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산시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11개소, 작은도서관 16개소, 사립도서관 17개소 등 총 44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은 총 13억1천4백만 원에 이른다.

안산문고를 운영하는 홍윤희 씨는 “불황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서점이고 경기회복 속도에 가장 늦게 반응하는 곳 또한 서점”이라며 “신학기인데도 손님이 많지 않다. 수능, 집중이수제 등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학부모들이 참고서를 사러 오는 횟수도 줄었다. 또 도서정가제에 대해 잘 모르는 손님도 많다.”며 서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러 온 이가은 학생(송호중2, 고잔동)은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은 잘 안 사게 돼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읽는 편입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려다 도서정가제라 책값이 같다는 것을 알고 동네 서점으로 사러 왔어요.”라고 했다.

홍 씨는 “시 차원에서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주어 감사하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아직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민들이 점차 동네 서점을 이용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0)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전 세계 23개 유명 미술관 소장의 명화를
아이들의 눈으로 새롭게 만나는

세계명화 여행전

- 전 시 명: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 여행전
- 전시기간: 2015. 4. 7 ~ 8. 23
-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 전시내용: 브라질의 윌트 디지털로 불리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 '마우리시오 지 소우자' 작가가 어린이들의 문화 함양을 위해 자신의 인기 캐릭터로 그린 명화 전시

안산시민 특별할인 기간: 2015. 4. 7 ~ 5. 3
(책정관람요금에서 3천원 할인)



얼마 전 서울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 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간만에 서울에서 친척들과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며 간만의 근황을 묻고 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었다.

그러나 그런 설렘도 오래가지 못했다. 버스 앞쪽에 앉은 어느 아주머니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언니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 상스러운 욕을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화가 누그러지면 잠잠하겠지 했지만 아니나

대중교통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다들까 버스가 출발하고도 30분 넘게 막말을 퍼부으며 버스 뒤쪽에 앉아 있는 나의 귀에도 생생히 들리는 것이었다. 어린 아이들이 들을까 걱정이 될 욕설이 많았다. 버스 안과 같은 비좁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남에게 소음 등 정신적인 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그분의 태도에 화가 났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아주머니께 부탁을 넘어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버스 기사님이 차를 갓길에 대고 한참을 달래고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친언니 분께서 버스 뒤쪽 빈자리로 옮겨가신 후 그 소동은 막을 내렸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본 지하철의 공중 도덕 일화가 떠올랐다. 일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화가 와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전화를 하고 받음으로써 대화 내용과 관련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작은 배려심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큰 소리로 전화 받는 분들을 어렵잖게 쉽게 만날 수 있고 젊은이들의 SNS 주고 받는 소리 등 남을 의식하지 않고 휴대폰 삼매경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정적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나만의 과욕일까? 내가 남에게 배려를 받고 싶듯이 내가 먼저 남에게 배려를 베푸는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 어른들의 그런 행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산 교과서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한번쯤은 공공 시설에 적절한 에티켓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서덕인 (단원구 도일로 46)

생활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기자수첩

시장에 가면~ 떡도 있고, 정도 있고



“많이 드린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한 마리 더 주세요.” 꽃게를 저울에 달며 주머니 받거니 흥정을 한다.

저울의 눈금은 이미 3kg를 훌쩍 넘었지만 “아주머니 겁나게 예쁘네요. 그리고 멀리서 이곳까지 오셨으니 한 마리 더

드리죠.”라며 흔쾌히 제법 싼 값으로 넘어준다.

주인아저씨의 경쾌한 입담과 적극적으로 흥정하는 아주머니. 왁자지껄한 시장 풍경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어린 시절 가장 큰 즐거움이 시장가는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평소에 먹지 못하던 설탕 듬뿍 묻힌 파배기나 금방 튀겨 파는 뜨끈한 어묵의 맛은 지금도 생생하다. 엄마의 주머니 사정이 좋거나 기분이 좋아 싸구려 티셔츠라도 한 장 얻어 입으면 그야말로 황재한 기분이 들곤 했다. 시장 곳곳에서 어린 시절의 풍경이 배어 나온다.

일요일에 맞는 오일장은 여느 오일장과 풍경이 사뭇 다르다. 따뜻한 봄기운이 더욱 흥을 돋고, 구경하는 시민들의 표정도 다소 상기되어있다. TV에 몇 번 방송되었다는 떡갈비 집 앞. 구수한 냄새에, 호기심에 이끌려 긴 줄의 끝에 선 시민들의 표정은 전혀 지루하지 않다. 긴가민가하며 지켜보는 행인들과 손님이 발길을 돌릴새라 재빠르게 손을 놀리며 주위를 집중시키는 상인의 말솜씨가 현란하다.

비릿한 생선냄새, 고소한 튀김냄새,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만병통치약.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구분할 수 없는 요상한 것들, 비좁은 식당 테이블마다 등을 맞대고 앉아 그간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 그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그러진 냄비.

환한 불빛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물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고 삶의 애환이 스며있는 안산시민시장을 찾아보자. 그곳에 가면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늘도 목청을 높이며 굵은 허리 펴 사이 없이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며 자조하며, 양손 가득 검은 봉지 속에 인정과 넉넉함을 담아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리라.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지구촌에 사는 우리 모두 친구입니다 안산지구촌합창단, 내외국인 자녀가 함께 만드는 하모니

“얼굴 생김새는 우리와 다른데 입에서 자연스러운 한국말이 튀어나와서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웃음이 터진다. 외모만 보고는 영어로 말해야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내국인 자녀 중 오디션을 통과한 아이들이 모여 합창과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 곳은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2010년 창립한 안산지구촌합창단은 현재 유아반 12명, 초중등반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자의 지휘봉을 바라보며 가사를 익히고 파트별 노래 연습이 한창이다. 이어 자리를 옮겨 노래에 어울리는 율동 연습 시간. 동요 메들리 음악에 맞춰 짹짹하거나 산뜻한 움직임을 표현해야 하는 대목에서 초등 고학년들과 중등부 학생들은 쑥스러워 동작이 작아진다.

그 중 5살 때부터 합창단에서 활동을 해 온 박미린 양(10세, 대월초)은 “합창단에서는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워서 재미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지만 여기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한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미린 양은 올 초에 베트남을 다녀왔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친척들과 함께 설날을 보내고 세뱃돈도 받았어요. 밥도 맛있고 과일도 달고 맛있어서 좋아요.”라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정민아 지휘자는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공부할 때 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경험해봤다. 처음엔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동경하

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끼리의 화합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유치원부터 단짝이었던 이준현 양(10세, 와동초)과 함동호 군(10세, 원일초)은 합창 연습이 끝나면 함께 집으로 가서 놀다오곤 한다. 동호 어머니 이지안 씨(40세, 베트남)는 “동호가 처음엔 쑥스러워했는데 많은 친구들, 형, 누나들과 함께 무대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서 좋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선임 씨(41세, 와동)는 “처음에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볼 때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공통된 이야기거리가 많아 금방 친해진다. 지금은 서로 음식을 나눠먹고 하고, 아이들 옷이 작거나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 아이들이 허물없이 서로 어울려 공연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합창단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산지구촌합창단은 2010년 제3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공연을 시작으로 제1회 전국 다문화어린이합창대회 금상 수상, EBS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연주회, 안산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희망나눔 사랑의 하모니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른 경험이 있다. 올해는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28일 광화문 야외광장 공연 등 편견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총 9건의 안건 의결... 정승현 의원, 신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



신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정승현의원

3월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안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폐회했다.

1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 4건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별 심사보고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 중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안산시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의회는 지난 12일 전준호 전임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 후 선거를 실시해 정승현(새정치민주연합, 부곡/월피/안산동) 의원을 신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국 관련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로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대변인, 3개 상임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정승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안산시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1명의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정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의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준모 의장은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회기동안 안전심사와 현장 활동으로 수고한 의원들과 의회 운영에 협력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 1차 회의 개최

(오리자널) (통)



의원연구단체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가 17일 첫 모임을 가졌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Original 안산! 안산 통신사'(연구책임의원 이상숙, 이하 안산 통신사)가 17일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산 통신사'는 이날 의회도서관자료실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숙 의원을 비롯해 손관승, 유화, 정승현, 이민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연구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협의했다.

안산의 문화예술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관광 클러스터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안산 통신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연구 주제에 대한 범위를 좁혔다.

의원들은 안산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다음 모임에서 안산문화

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 계획의 밑그림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상숙 연구책임 의원은 "안산 지역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 유적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 지역에도 이 분야 전문가가 많은 만큼, 이들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3일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 '안산 통신사'와 '안산 문화·해양 관광자원 발굴·개발 연구회'(연구책임의원 홍순목), '안산 스포츠 플러스'(연구책임의원 김정택) 등 3개 연구단체에 대한 구성을 완료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문화복지위, 시 집행부와 간담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7일,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7일, 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가 17일 각각 시 집행부와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회계과와 투자유치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을 제시했다. 시 회계과는 단원구 지역 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투자유치과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합동(合洞) 등 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90블록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시 대부개발과와 관광과, 해양수산과, 보육정책과, 문화예술과 등 5개 과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대부해양관광본부 현안 사항 및 추경예산안,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신축변경 사업, 문화재단 추경예산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과의 사업 내용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시 집행부와 의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부서별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현황을 점검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안전한 사회만들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황사보다 위험한 미세먼지

마스크 선택법





유난히 하늘이 뿌연 어느 날

안개가 끼니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네.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야. 미세먼지주의보 내린 거 몰라?

이런 날엔 물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랑 가습기도 자주 틀어야 해. 외출 시 보호안경과 마스크는 필수지.

스타일 구기계 마스크는.

아파도 난 몰라.

아악!

과당!

조심해야지.

바보야!

두근 두근

괜...찮아?

으...응.

어?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뭐 하는 시추에이션?

나, 나도 마스크를 사야겠는걸?

어서 오세요.

‘황사용 마스크로 주세요!’

마스크 하나 주세요.

황사, 미세먼지용 마스크

황사와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따로 있어. 일반 마스크는 섬유 사이가 촘촘하지 않아서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해.

우와~

황사용 마스크는 따로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인증된 제품을 써야 해요. 그 성능 규격은 KF(Korea Filter)와 숫자로 표시하는데, 황사마스크의 기준은 KF80입니다. 0.04~1µm(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으로, 꼭 KF80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세요.

17000원 원입니다.

자기, 마스크해야지~

쳇, 미세먼지가 뭐라고... 황사랑 다른 거야?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에서 시작된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흩날리야.

몽골

황사 영향권

고비사막

중국

타클라마칸사막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같은 무시무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이뤄져 있어.

이렇게 보임

미세먼지가 더 위험하잖아! 자기 두 개 해!

찾았다! KF 규격품!

황사보다 무서운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PM : Particulate Matter)는 입자의 지름이 10µm(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µm 이하인 먼지를 말해요. 둘 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지만,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머리 카락 크기의 100분이 1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아 대부분 몸 깊숙이 침투해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2.5µm 미만 미세먼지는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축적, 폐포를 손상

황박사의 한마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응응.

이걸로 100개 주세요. 열른 계산해!

환경

환경

약국

약국

한 박스 더 주세요.

내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갔어. 흑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면 참 편하데이~~

인·허가의 기능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약식서류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해 정식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편의 제도입니다.

- 대상 민원사무 -

-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 승인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보육시설 인가 신청 ▶농지전용(변경)허가 등

문의: 안산시 민원여권과 ☎ 031-481-2130

예비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부부 야간 출산 준비 교실

단원보건소에서는 준비된 엄마 아빠를 위해 야간 출산 준비 교실을 1기 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아기가 세상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고통스럽지 않고, 평화롭고 따뜻하며 한없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 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1회기 2주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19시 ~ 21시)
1기: 4월 6일 ~ 4월 13일 / 2기: 4월 20일 ~ 4월 27일 / 3기: 5월 4일 ~ 5월 11일
- 대 상 임신 16주 ~ 32주의 예비 엄마, 아빠
- 내 용 1주차 A+영태태교와 임신부 정서 및 태교 요가 / 임신부 영양, 다양한 태교법 등
2주차 순산분만법, 모유 수유 성공법 / 태교 요가 등
- 장 소 단원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 접 수 2015. 3. 30(월) ~ 4. 3(금), 전화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인 원 각 기수별 부부 20쌍
- 수 강 료 무료
- 연 락 처 단원보건소 모자건강담당 ☎ 481-2552, 2573

단원어린이도서관 4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4월 4일 (토)	 4월 11일 (토)	 4월 18일 (토)	 4월 25일 (토)
--	---	---	---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4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4월 4일 (토)	 4월 11일 (토)	 4월 18일 (토)	도서관주간 기념 '서지원 작가와의 만남' 행사 진행으로 미상영 4월 25일 (토)
--	---	---	--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1층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481-26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관산도서관

북크로싱독서

Book Crossing 관산도서관 북크로싱에 참여하세요.

북크로싱 운동! 책을 읽은 후, 메시지를 적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책 돌려받기 운동

모집기간 2015. 3. 2. ~ 3. 31.

모집대상 총 40명

도서관명	참 여 기 간	모집대상
관산(시)	4.1.~7.15. 매일 1,3주 수요일 총 8회, 10:00~12:00	성인 10명
관산(구)	4.7.~7.21. 매일 2,4주 화요일 총 8회, 10:00~12:00	성인 10명
신부	4.8.~7.22. 매일 2,4주 수요일 총 8회, 10:00~12:00	성인 10명
당곡적은	4.15.~6.10. 매주 수요일, 총 8회 (5.6 제외) 15:30~17:00	초등 3~6학년 10명

참여내용

- 월 2회 독서수다모임
- 독서모임 참여기간에 한해 관산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 10권까지 도서대출가능
(해당도서관:관산,단원,원곡전,선부,당곡,선내마을)

신청방법

- 관산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강좌
- 관산도서관, 선부도서관, 당곡적은도서관 자료실 방문 선착순 접수

북크로싱 참여할 안산시 관내 학교와 단체 모집

모집기간 2015. 3. 2. ~ 3. 31.

모집대상 초/중/고등학교 15개소 / 직장 5개소

참여기간 4. 1. ~ 7. 31.

참여내용

- 단체당 2권의 북크로싱 도서 지원
- 학교와 직장에서 북크로싱 독서운동(4~7월)
- 참여 후 북크로싱 인증액자 전달(9월에정)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이메일 접수
(E-mail: yewon33@korea.kr)

※ 신청서는 관산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매월 북크로싱 하기 좋은 도서관
관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lib.iansan.net>

관산도서관
관산도서관 481-2752
선부도서관 481-3885
당곡적은도서관 481-3880